

#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설치 법안 반대”

### 농촌 경관 파괴·임야 훼손·환경오염·지역간 갈등 조장 전남 시장·군수협, 농지법 개정안 철회 靑·국회 건의문

전남 시장·군수협의회가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허용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시장·군수협의회는 22일 “청와대와 국회 등에 건의문을 보내 농업진흥구역 내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 16명이 공동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농촌 경관 파괴, 보존 가치가 큰 임야의 훼손, 전문 투기세력

에 의한 개발이익의 유출, 시설물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및 안전성 문제 등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다원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농촌을 개발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 것을 요구했다. 농업진흥구역은 식량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농지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하면서 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순수 농민의 영농의지를 꺾고, 주민간 그리고 지역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형식 담양군수는 “농업진흥구역은 식량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해 농촌을 개발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22일 광주전 광암교 인근에서 열린 시민참여형 광주전 가꾸기 발대식에 참가한 광주지역 기관 및 단체 직원들이 천변 자연길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무등산·광주천 시민들이 직접 가꾼다

### 시민 참여형 발대식

무등산과 더불어 광주의 상징이자 젖줄인 광주천을 시민들이 직접 나서 가꾸는 운동이 본격화된다.  
광주시는 22일 오전 광주천 광암교 인근 둔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6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시민 참여형 광주천 가꾸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용섭 시장, 김동찬 시의회 의장, 26개 기관·단체 대표,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비전선포, MOU 체결, 기념행사, 환경정화활동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시민참여형 광주천 가꾸기’ 사업은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참

여해 광주천을 구역별로 나눠 직접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의 획일적 관리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공간이 스스로 관리하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광주천 19.5km 구간 중 하천의 생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상류 일부를 제외하고 동구 용산동 용산생활체육공원 앞부터 서구 치평동 영산강 합류지점까지 약 12.2km 구간이 사업 대상이다. 300m 내외로 담양구역을 지정하고, 사업 참여 기관·단체가 관리하는 방식이다.  
사업 참여 기관·단체는 지정된 구역에 대해 ▲하천정화활동 ▲하천경관 개선 ▲환경 캠페인 등을 펼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공공기관·유관단체 채용 비리 전수조사

### 다음달 12일까지 1차조사

전남도는 산하 22개 지방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 전반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 비리 전수조사단을 구성하고 중앙정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조한다.  
2017년 10월 1일 이후 모든 신규 채용자와 2014년 이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조사 대상이다.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 청탁이나 부당 지시 여부, 인사부서 채용 업무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전남도 감사관실과 예산담당관실 소속

으로 구성된 ‘전남도 채용 비리 전수조사단’에서 오는 12월 12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한다.  
1차 조사결과에 따라 비위 혐의가 높거나 제보가 있는 사안 위주로 다음 달 18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심층 조사를 한다.  
또 전남도 누리집에 ‘채용 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누구나 쉽게 채용 비리와 관련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준수 전남도 감사관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돼 전수조사를 하게 됐다”며 “채용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도의회 예결위 운영기간 늘리고 심사방식 개선

### 예산안 심사 효율성 강화

전남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결위 운영 기간을 늘리고 심사방식도 개선했다.  
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을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늘렸다. 심사 기간을 늘려 예산안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는 취지다.  
도청 집행부도 예결위 심의 기간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집행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심사 날짜를 실·국별로 분리했다.  
첫날에 11개 실·국, 둘째날 12개 실·국 셋째 날에 종합심사 의결 방식으로 이뤄진다. 1일차는대변인실·도민소통행복실·감사관실·인구청년정책담당관·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여성가족정책관·보건복지국·보건환경연구원·동부지역본부가 대상이다. 2일차는 국제협력관·기업도시담당관·일자리정책

본부·경제에너지국·관광문화체육국·도민안전실·건설교통국·소방본부·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해양기술원·농업기술원 등이다. 첫날과 둘째날에는 해당 실·국만 예결위에 출석하고 마지막 날에만 전 실·국이 참석한다. 기존에는 도청 소속 23개 실·국 예산을 일괄 상정해 이를 내내 전 실·국이 출석했었다.  
심사방식도 실·국장이 주요 예산을 설명한 후 예결위원과 집행부간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실·국 순서대로 주요 예산을 설명하면 예결위원들이 해당 실·국에 대해 질의하고 집행부가 답변하는 식이다. 그 동안에는 실·국장 설명 없이 모든 실·국 대상으로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두서없이 진행됐었다.  
이광일(더불어민주당·여수1) 전남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예산 심사의 집중력과 효율성은 높이고, 집행부의 부담을 줄이고자 실·국 예산 심사를 분리했다”며 “도민의 혈세가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107명 해외바이어 참가 2117억 수출상담

### 광주 국제광산업전시회 폐막

광주시는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국제광산업전시회가 독일·미국 등 15개국 107명 해외바이어가 참여한 가운데 2117억원의 수출상담과 354억원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고 21일 폐막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행사는 대기업 LG이노텍의 EP LED와 한국 알프스가 데이터센터용 글라스 렌즈 등 미래기술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IoT 광융합관, 광학 및 OLED 관, LED융합조명관, AR·VR 3D체험 홍보관, 한국광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

구원 기술이전 기업 제품, 초정밀 레이저 접합공정기술, 수냉식 LED집어등, 피부미용 마스크 등 117개 업체·기관 신제품을 선보였다.  
AR체험관, VR체험관, 3D홍보관, LED조명식물 키우기 체험관 등 다채로운 광융합산업 체험공간에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는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남미를 비롯한 15개국에서 광융합 관련 바이어 107명이 참가해 191건, 2117억원의 수출상담과 12건, 354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 금융소외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 1500만원 한도 금리 2~4%

광주시는 저소득, 저신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저리의 생활안정자금인 ‘빛고을론’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무조정(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중이면서, 상환 계획에 따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는 광주 시민이다. 1500만원 한도로 대출 금리는 학자금은 2%, 생활자금은 4% 이내, 5년 내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자금 용도는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긴급히 필요한 생활안정자금,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대학 학자금, 고금리

대출 상환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비품·시설물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등이다.  
대출을 받고 싶은 시민은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1600-5500)에서 상담 후 제출서류를 신청하면 1주일 뒤 대출금이 지원된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빛고을론은 광주시가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서울보증보험과 협업체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도 400여 명에게 13억원의 지원하고, 그동안 총 4000여 명에게 116억원을 지원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줬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제 노안과 백내장을 동시에 해결하세요

## 신세계안과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

- 기존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낭 절개를 수기로 진행
-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은 3D OCT 통해 안구 상태 실시간 확인
- 안구 스캔 후 자동으로 3D 알고리즘을 통한 정밀 분석
- 3D 펌트세컨드 레이저 시스템으로 정교한 수술 가능
- 3차원 입체절개 방식으로 개개인의 정확한 맞춤 난시교정 가능
- 개별 맞춤형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 삽입으로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시력 가능
- 자동 안구보호 시스템으로 수정체낭 파열, 홍채 손상 등 합병증 방지
- 레이저 최소절개 수술로 다음날부터 돋보기 없이 일상생활 가능

1566-9988 광주시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피, 이동통신 등 업종 선의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빌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딩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